

시간은 나 예수다

작성일 : 2010. 08. 28. (토)

작성자 : 김진미 (37세, 부산열매교회, 교역자)

철야기도하며 주님께 사랑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  
서 제 앞에 오심이 느껴졌습니다. 주님의 세마포 자  
락 밑에 부르튼 발이 마음의 눈으로 보였고 우리를  
위해 여전히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주님과 선생님  
의 심정이 느껴져 그 발을 어루만지며 슬피 울며  
기도하게 되었습니다. 그간 개인의 한계에 빠져 삶  
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 
뜻대로 모든 시간, 모든 삶을 드리며 살겠노라 고백  
하였을 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.

\* 예수님 말씀 \*

내 귀한 사랑아.  
네 사랑의 향기 맡고 나 이곳에 왔노라.  
아름다운 내 여인아~ 내 사랑아.  
네 눈물 네 사랑 보았노라.  
내 현대를 어루만지며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 보았  
노라.  
진정 사랑한다.

나 예수는 오늘도 사랑에 목말라  
내 사랑을 간절히 찾고  
나 오기를 호소하는 자에게  
내 온 영의 몸을 가지고 한달음에 왔노라.

사랑하는 섭리의 내 신부들.  
나의 이 설레는 재림의 역사 앞에  
부름 받은 축복된 인생들아.  
진정으로 내 사랑하는 신부야.

나의 이 진정한 사랑을 알겠느냐?  
육천년 기다린 내 아버지의 사랑,  
이천년 오늘 이 재림의 역사를 기다리며  
영의 몸으로 내 몸이 험 정도로 뛰고 달렸던  
내 사랑을 아느냐?  
지금도 나는 여전히 십자가 길을 가고 있노라.

사랑을 얻는 것이 쉽지 않다.  
너희의 사랑 얻고자

나는 또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 없구나.

지금은 너무나 귀한 때이다.  
내 아버지의 기다림...  
나 예수의 기다림...  
(그리고) 수많은 천천 영들의 기다림...  
그리고 기대 속에 이 재림의 역사 진행 중에 있노  
라.

내 말하였다.  
시간이 얼마 없다고...  
그러하다.  
내 마음 너무 조급하구나.  
너희는 모를 테지.  
이 재림의 때 시간의 가치를...

시간은 물과 같다.  
잡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이 흘러가는 것이고  
아무 소득이 없다.

나 예수는 1분 1초 흘러갈 때마다  
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다.

마치 시한부 인생으로 사는 자가  
6개월 선고를 받았다고 하자.  
그 인생 앞에 하루하루는 어떠한 시간이겠느냐?  
다시 돌아올 수 없는, 돌이킬 수 없는  
금쪽같은 시간이다.  
눈물을 흘리며 지나가는 시간을 애통해하며  
하루하루를 보낼 것이다.

마치 나의 마음은 이와 같다.  
너희를 바라보는 나의 마음.  
죽음의 날을 받아놓고  
앞날을 모른 채 살아가는 인생들처럼..  
참으로 그 귀한 시간 덧없이 보내는 너희를 보니  
내 마음 늘 조바심에 차 심장이 멎을 것만 같구나.

사랑아. 내 사랑아.  
지금의 시간이 어떠한 의미인 줄 아느냐?  
시간은 바로 나 예수요,  
내 아버지 하나님이요, 성령님과 같다.

나 예수를 잡지 않으면 결코 구원은 없다.

근본 내 아버지, 성령님께서  
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으면  
결단코 너희 인생은 살 수가 없느니라.

이와 같이 시간을 잡지 않는 것,  
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은  
삼위를 잡지 않고 무관하게 사는 인생과 같다.  
결국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다.

내 사랑...  
나 예수를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한가지로  
단숨에, 일순간에 얻어지는 사랑이더냐?  
아니다.  
끊임없이 내 사랑의 산에 올라  
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 
내 깊은 사랑의 산에 홀연히 올라오는 것이 아니  
냐?  
그와 같이 시간도 그러하다.

시간을 나 예수처럼 귀히 보는 자..  
1분 1초 아끼며 그 시간 놓치지 않으려고  
나 예수를 잡듯 시간을 잡아  
귀히 쓰고 또 쓰는 너희 선생을 보아라.  
1초를 잡고, 1분을 잡고, 10분을 잡고,  
1시간을 잡고, 24시간을 잡고,  
일생 평생을 잡고, 나 예수를 잡았다.  
그리하여 내 귀한 사랑을 얻고 구원을 이루었으며  
지금은 너희 구원을 책임지며  
24시간을 1000년처럼 쓰고 있노라.  
역사를 쓰고 있다.

내 사랑아. 내 사랑들아.  
내 사랑도 너희들의 몸부림으로  
홀연히 사랑의 산에 올라와 그 사랑 쟁취한 것이고  
그러한 과정 가운데 온전한 신부되어  
재림을 이루는 것이다.  
모든 것이 순간 단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라.

시간도 그러하다.  
당장 1분 1초 놓친다고  
인생이, 네 운명이 뒤바뀌는 것 같지 않는 것이다.  
그러나 1초를 놓치면 1분을 놓치고,  
1분을 놓치면 10분을 놓치고,  
10분을 놓치면 1시간을 놓치고,

그 한 시간에 네 인생 전체를 놓치게 되고  
결국 네 인생 하나 책임지지 못한 채  
홀연히 돌이킬 수 없는 어둠의 길에  
네가 서 있게 되느니라.

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아.  
진정 시간을 아껴라.  
1초를 놓치지 말아라.  
1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.  
네 인생을 소홀히 여기지 말거라.  
결국 시간을 놓치면 나 예수를 놓치게 되고,  
너희 구원의 세계도, 재림의 역사도 놓치게 되는 것  
이다.

그러니 너희는 시간을 나 예수라 생각하고  
귀히 여기고 귀히 쓰라.  
1분을 천 년처럼 쓰라.  
이 1분을 어떻게 귀히 쓸까 연구하여라.

너희 선생 그 1분 그 1초 아끼려  
밥 먹는 시간조차 아까워 아끼고 아낀다.  
화장실 가는 시간조차 아까워  
순간 조는 시간 아까워 새우잠 자며  
육의 불편함을 조금도 마다치 않고  
시간을, 나 예수를 잡으려 그리도 몸부림치는구나.  
진정 1초를 천 년처럼 쓰는 자다.  
선생의 그 애달픈 몸부림에 내 마음 아프다...

내 사랑들아.  
십자가를 같이 지는 것이 무엇이나?

핍박을 이기며 이 십리,  
너희 선생 버리지 않고 이길 가는 것 그것이나?  
맞다. 그것도 같이 십자가 지는 것이지.

너에게 오는 삶의 고통,  
나와 함께 이 길 가기에 오는 고통,  
그것 참고 인내하며 뜻을 따라 가는 것 그것이나?  
맞다. 그것도 같이 십자가 지는 것이지.

2000년 전 그리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  
내 이름으로 목숨을 내어놓은 순교자들.  
그들의 삶이 나와 같이 십자가 지는 것이냐?  
맞다. 그것도 십자가 같이 지는 것이지.

주를 위해 죽는 것 쉽지 않은 일이다.  
진정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 놓는 것  
쉽지 않은 일이지.

그러나 진정한 십자가...  
내 이 재림의 마지막 역사 앞에  
내가 원하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이나?  
말해보아라.  
너희의 목숨을 내어놓길 원하는 것이냐? 무엇이나?

주를 위해 죽는 것 네 목숨 내어놓는 것  
쉽지 않은 일이다.  
그러나 더 쉽지 않은 길...  
그 길이 무엇인지 아느냐?  
내가 진정 너희에게 원하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  
느냐?

‘주를 위해 사는 것’이다.  
주를 위해 산다는 것은  
주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.  
더 큰 십자가를 지는 길이다.

나를 위해 죽는 것은  
나를 향한 사랑 하나로 마음 결단하여  
한 번에 순교의 길을 갈 수도 있다.  
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지.

그러나 나를 위해 사는 것은  
순간의 사랑하는 마음 한가지로 할 수 없는 것이다.  
네 삶의 모든 시간을 내게 줘야 가능한 것이고  
네 삶의 모든 시간 나의 뜻대로 살아야 가능한 것  
이고  
어떤 어려움에도 그 마음 꺾이지 않고  
삶에 굴하지 않으며  
내 뜻만을 위해 살아야 가능한 것이고  
24시간 깨어 내 뜻만을 살피며  
마음이 아니라 네 온 몸으로 살아야 가능한 것이고  
나와 같은 삶을 살아야 가능한 것이다.

사랑하는 자들아.  
사랑하는 내 애인들..  
진정 나를 위해 살아주겠느냐?  
내 육신 되어 진정 살아주겠느냐?

쉽게 대답하지 않길 바란다.

그 길 쉽지 않기 때문이고  
그 길 진정 내 갔던 십자가 길이기 때문이고  
지금 너희 선생이 가고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.

그 길 정녕 같이 가 주겠느냐?

주를 위해 죽는 것 쉽지 않다.  
그러나 주를 위해 사는 것  
그것은 더욱 어려운 길이다.

그러나 그 길 끝에는 내가 있고  
너희의 모든 소망 이루어지는 참 길이며  
천국의 소망이 있고  
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는 길이며  
영원한 구원의 길이며  
영원한 안식이 있는 길이다.

나와 함께 그 길 가려느냐?  
말해보아라.

내 육신 되어 정녕 1분 1초 아끼며  
내 뜻대로 살아주겠느냐?

나 예수는 진정 너희가 그리 살아주길 원하노라.  
너희 선생의 삶같이 살아주길 원하노라.  
할 수 있다.  
그리 어렵지만은 않다.

어떻게 하면 네 몸을 내 몸 되게 하며  
살아갈 수 있겠느냐?  
1초를 아껴라. 1분을 아껴라.  
1초를 나 예수라 생각하고 1초를 잡아라.  
1초를 잡고 그 1초에  
어떻게 하면 내 뜻대로 살지 생각하고  
내 뜻 네 몸으로 실천하라.  
멍하게 뉘 놓고 살아서는 안 된다.  
1초 놓치면 다 놓친다 생각하거라.  
먼저 1초를 잡고 1분을 잡고 10분을 잡아보아라.  
집중하지 못하는 삶.  
바로 나를 놓치는 삶이다.  
10분을 나에게 집중하며 내 뜻대로 네 몸을 써보아

라.

그리고 1시간을 집중하여 네 몸을 내 뜻대로 써보  
아라.

그와 같이 하며 24시간을 내 몸 되어 살아보아라.

그리하며 내 몸 되어 사는 것이다.

너희 선생처럼...

시간은 금이다.

시간은 나 예수다.

시간을 잡아야 네 구원을 잡을 수 있다.

시간을 잡고 네 몸이 내 몸 되어 살아야

재림을 온전히 준비하고 맞을 수 있다.

사랑하는 내 신부들아.

너희의 모든 시간, 너희의 모든 삶.

나 예수를 잡듯 잡아 홀연히 변화되고

내 육신 되어 너희 선생처럼 살기를 소망한다.

나를 위해 살아다오.

나의 육신 되어 살아다오.

사랑한다. 진정 너희를 기대하며...

네 사랑 예수가 전한다.